

이덕일의 '역사의 창'



가야가 전라도까지 차지했다고?

최근 '호남 가야'라는 낯선 용어가 나타났다. 경상도에 있던 가야가 전라도까지 차지했다는 것이다. 지난 2018년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이 사적 제 542호로 지정되었는데, 이것이 '호남 가야 유적'이란. 옛 무덤은 시신을 안치하는 무덤방을 드나드는 널길에 있는 횡혈식 석실분(橫穴式 石室墳)과 시신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 안치하는 수혈식 석곽묘(竪穴式 石槨墓)로 구분한다. 이중 횡혈식은 백제계이고 수혈식이 가야계라는 것이다. 남원에서는 이 두 가지 무덤 형태가 다 나왔는데 횡혈식은 어디로 사라지고 가야 유적이라고 우기는 것이다. 충남 논산 모촌리 고분군은 수혈식 석곽묘 13기와 횡혈식 석실분 1기가 나왔는데 백제 유적으로 분류한다. 충청도의 수혈식 무덤은 감히 가야계라고 말하지 못한다.

지난 2019년 11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영호남 가야 한마당'에는 이철우 경북 지사, 김경수 경남 지사, 송하진 전북 지사가 참석했다. 이들은 "영·호남에 폭넓게 분포했던 가야의 역사적 위치

재정립을 통해 영·호남 상생발전의 길을 모색하자"고 다짐했다.

그런데 사실 여부는 둘째 치고 경상도의 가야가 전라도까지 차지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이 '상생·협력의 길'인가? 그렇다면 신라가 백제를 멸망시킨 것이야말로 영·호남 상생 발전의 길이 아닌가? 신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킨 것을 '남북한 상생 발전의 길'이라고 북한 학자들에게 주장한다면 무엇이라고 답할까?

가야가 전라도까지 차지했다는 주장의 유래를 북한 학자 조희승에게 물어보자. "지난날 일제 어용사자들은 고대시기 남북조전 일대가 일본(야마토)의 '식민지'였다는 것을 조작하고 가야의 영역을 축소하게 외국 날조하였다. 그들은 가야의 영역을 '일본서기' 임나관계 기사에 나오는 지명들에 '기초'한다고 하면서 오늘의 전라도나 심지어 충청도까지 포괄한다고 억지 주장을 하였다. 그것은 가야의 영역이 넓어야 일본의 이른바 '식민지' 지배영역이 넓어진다는 지배주의 관점에 바탕을 둔 꾀변이었다." (조희승, '가야사')

가야의 영역이 전라도·충청도까지라고 억지 주장을 한 것은 일제 어용사자들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가야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임나라고 생각한다.

더 심각한 것은 가야(임나)가 전라도·충청도까지 차지했다고 최초로 주장한 인물이 명성황후 시해에 가담했던 남인 강패아유카이가 후사노신(鮎耳房之進)이라는 점이다. 아유카이가 '일본서기' 조선지명도라는 책에서 임나(가야)가 전라도·충청도까지 차지했다고 우겼고,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 출신의 스에마쓰 야스카즈(末松保和)가 일제 패전 후 '임나흥망사'에서 같은 역할을 펼친 것이 지금 '영호남 상생 발전의 길'이란 용어로 포장되고 있는 것이다.

이 위에 일본 극우파들로부터 장학금과 생활비까지 받으며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귀국해 대학에 자리 잡은 학자들이 '가야-임나설'을 주장하면서 가야가 전라도까지 점령했다고 우겼는데, 이것이 현재 '영·호남 상생·발전'이라는 논리로 통용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전북은 가야(임나)가 모두 점령

했고, 곧 전까지 점령할 기세다. 전남 순천군 운평리 고분군이 가야계라는 것이다. 가야가 전파·전남까지 다 차지했으면 백제는 어디로 가나? '삼국사기'는 백제 동성왕이 재위 20년(498) 탐라(제주도)가 세금을 바치지 않자 정벌하러 무진주(武珍州: 광주)까지 내려갔는데 탐라가 사신을 보내 사죄해서 그만두었다고 서술했다. 백제 강역이 전라도는 물론 제주도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가야가 전라도·충청도까지 차지했다는 역지는 남인 강패 아유카이가 '임나일본부'를 한국 남부 전체로 확장하기 위해 만든 것이었다. 이남인 강패의 역지를 지금 중앙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들까지 막대한 국고를 써가면서 현실화하고 있다.

필자는 일제 식민사학을 극복하고 독립운동가들의 역사학을 이 나라의 주류 역사관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별꼴을 다 봤다. 하지만 명성황후를 시해한 남인 강패 아유카이의 망명이나 그를 휩쓸어 쫓아낸 정씨는 몰랐다. 그것도 언발장 적폐 청산을 내건 이 정권 아래에서 말이다.

의료칼럼

'혼추족' 건강한 추석 나기



김민성 수원청연한방병원 병원장

지 체크해 놓는 것이 좋다. 요즘에는 편의점에서 간단한 약은 팔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 놓아야 한다.

상비약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가까이 이용할 수 있는 병의원과 약국도 한두 군데 정도 점검해 놓으면 만약의 경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막상 찾으려 하면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허둥대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혹시 미리 알아 놓지 않았다더라도 포털 사이트에 '명절 병원'을 검색하거나 전화번호 129(보건복지상담센터)를 이용하여 검색을 할 수 있다.

또 명절 기간 중 가장 흔히 앓을 수 있는 질환은 역시 '급제'이다. 체했을 때에는 침이 최고지만 손만 따서 피를 내더라도 (사혈 요법) 효과가 좋다. 보통 엄지손톱의 뿌리바깥쪽 부위를 만다. 손끝에 피를 내면 말초의 감각 신경을 강하게 자극해 중추 신경계에 통증 반응을 전달하고, 이에 따라 자율 신경계를 재조정하여 소화, 호흡, 혈압 등을 안정화시키는 효과를 유도한다.

다만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소독과 후처리를 잘해야 하며, 소화 불량과 혼동할 수 있는 다른 질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이외에도 엄지손가락 뼈와 둘째손가락 뼈가 만나는 부위의 움푹 파인 곳을 합곡혈이라 하는데, 이 부위를 강하게 자극해도 속이 답답할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명절 연휴에도 꿈을 위해 공부에 매진하라는 수험생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방안에만 있다 보면 컨디션 조절이 쉽지 않다.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가벼운 산책이나 맨몸 체조라도 하는 것이 컨디션을 유지하며 공부에 매진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장시간 혼자 방안에만 있다 보면 우울감이 빠지기도 쉽다. 운동이나 가벼운 야외 활동은 우울감 해소에도 좋다. 우울할 때에는 박차차, 카모마일, 자스민차와 같은 방향성 있는 차를 마시면서 잠시 여유를 가져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낮에는 아직 더운 기운이 있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는 요즘이다. 야외 활동이 많은 혼추족은 적절한 복장 착용과 손씻기로 환절기 감기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휴를 맞아 아르바이트를 늘리는 혼추족도 적지 않다. 장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목·어깨 통증과 허리 통증에 시달리기 쉽다. 명절 이후에는 목·어깨·허리 등 다양한 통증으로 병원을 찾기도 마련인데, 요즘에는 명절 기간 장시간 아르바이트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찾는 경우가 늘고 있다. 틴틴 스트레칭을 통해 목·어깨, 허리 주변의 근육을 풀어주고 최대한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혼추족뿐만 아니라 귀성길에 오르는 사람들은 장시간 운전이나 과도한 음주, 과식 등을 피하며 건강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여러모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는 국민들 모두 오랜만에 추석 명절의 따뜻한 기운을 느끼며 힐링하기를 기원한다.

社說

군공항 후보지 수용 여건부터 먼저 바꿔야

국방부가 광주 군 공항 이전 후보군으로 무안·해남에 이어 고흥을 새로 포함시켰다. 하지만 고흥군과 군민들이 결사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데다 지역 의견 수렴조차 없이 진행돼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 군 공항 이전 사업단은 지난달 고흥 지역에 대한 '군사 작전 적합성 평가'를 공군에 의뢰했다. 대상지는 국가종합 비행능능시험장을 조성 중인 고흥남간척지 일원이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공항 입지 적합성 평가를 통과한 전남의 9개 부지에 대한 개략적인 작전성 검토를 받았는데 고흥남 간척지가 유일하게 이 과정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3년 전 무안·해남을 후보지로 선정했지만 주민 반발로 사업이 공전을 거듭함에 따라 대체 후보지 발굴 내지 후보군 확대를 위한 작업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작전 적합성 평가에는 통상 6개월이 소요되는데, 그 결과 고흥에 '적합' 판단이 내려질 경우 예비 이전 후보지는 세 곳으로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고흥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송기근 고흥 군수는 "주민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게 맞느냐"며 "주민들과 함께 반대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하면 국방부가 대안으로 모색하고 있는 고흥에서도 무안이나 해남과 같은 반발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광주 군 공항 부지를 개발한 이익 일부를 이전 대상 지역에 투입하는 현행 '기부대양어'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난개발을 전제로 한 후진적인 제도인 데다 이전 대상 지역민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보상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군 공항 이전 특별법부터 전면 개정해 이전 지역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담아야 한다. 공공기관 이전이나 국책 사업 우선 배정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국방부는 광주사·전남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후보지 주민들이 군 공항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부터 먼저 조성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로 늘어난 재활용 쓰레기 대책 마련을

코로나19 유행이 7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와 함께 '비대면' 문화가 일상화되면서 외출을 꺼리고 집에서 주로 머무는 '집콕' 생활도 장기간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온라인 쇼핑에 따른 택배와 직접 요리를 하지 않는 배달 또한 늘고 있는 추세이다.

문제는 이 같은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일회용품 등 플라스틱과 비닐 재질의 쓰레기 배출량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플라스틱 재질의 쓰레기와 종이류가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정작 이를 수거해 처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광주·전남 재활용 쓰레기 처리 업체들은 물량 급증으로 인해 쓰레기 수거 단가가 지난해보다 30%까지 하락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수거한 재활용 쓰레기를 쌓아두는 것도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광주시에 따르면 올 8월

까지 배출된 재활용 쓰레기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7% 증가한 2만1010t 규모다.

중고 의류 수출업체들도 코로나로 인해 단가가 떨어지고 판로마저 막혔다며 한숨인데 중고 의류 단가는 지난해 대비 3분의 1 정도로 떨어졌다. 또한 예전엔 수거한 의류의 90% 이상을 동남아시아 등지로 수출해 수익을 얻었지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수출 물량마저 급감했다.

최악의 '재활용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시급하다.

시민들의 협조도 절실하다. 궁극적으로 재활용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면서도 순환율은 현재보다 더 높일 수 있는 묘안을 찾아야 한다. 각 가정에서 먼저 실천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쓰레기 줄이기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無等鼓

어쩌면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협상의 연속일지 모른다. 집안일을 분담하는데 아내와 실랑이를 벌이거나 딸아이의 용돈 인상 요구를 받고 얼마로 책정할지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그 범주에 포함될 것이다. 가족 간에도 자신의 의견을 더 관철시키기 위해 진력을 다하는데, 업무와 관련된 협상의 치열함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이를 대행해주는 협상가(negotiator)라는 직업이 생겨난 것도 그러한 이유다.

협상가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하버드대 등 유명대학들도 애플·타이양·삼성 등을 개설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변호사가 맡았지만, 이제 수사·정보기관 경험자, 심리·사회학자, 관련 업종 전문가 등도 속속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하버드대 법대 교수이자 협상연구소 설립자인 윌리엄 윌리엄 윌리엄(William Ury)은 협상이 단순한 테크닉이 아니라 일정한 원리를 지닌 과학과 같다고 했다. 상호 이익이 되는 기본 원리들을 익히고, 이를 적용한 전략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상대방의 요구와 숨은 욕구를 구별할 것,

상호 이익을 남기는 창조적인 대안을 고민할 것,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할 것, 합리적인 논거를 준비할 것, 차선책을 마련할 것 등을 그 원칙으로 제시했다.

협상은 자신이 원하는 것만 관철시키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흥정과 다르다. 절대 우위에 있는 위치가 아니라면, 상대방과 의사를 소통하고 상호 작용을 해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제갈량, 서희, 사명대사 등이 뛰어난 협상가로 이름을 남긴 것은 그들이 상대방의 의중을 분명히 파악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용성 광주시장이 광주·전남의 행정 통합을 제안하면서 지역 내 뜨거운 이슈가 됐다. 과거 통합 논의의 실패 사례와 민선 7기 들어 흔들리는 상생 분위기도 회자되고 있다. 34년 전 광주와 전남이 분리되자 시도민들은 전남을 어머니, 광주를 큰아들애 비유했다. 큰아들이 연로한 어머니를 모시듯, 어머니가 고생하는 큰아들을 아끼듯 상호 이익을 양보하는 것이야말로 모두에게 유익할 것이다.

/윤현성 정치부 부장 chadol@

기 고

온 국민이 함께 쓰는 '전원일기', 우리 농산물의 '뉴 노멀'



강현주 농협전남지역본부 홍보실장

우리 농산물 또한 수천 년간 땅을 지키며 우리 국민의 입맛에 맞게 진화해 왔다. 소비자들이 언제나 찾아도 편안할 가격과 인지도를 지켜야 할 것이다. 농산물이 생산될 때부터 소비자에게 도달될 때까지의 이동 거리를 일컫는 '푸드 마일리지' 축면에서도 우리 농산물은 수입품과 비교할 수 없는 장점이 있다.

둘째 정직한 풍성함이다. 세간에 한참 유행했던 신조어를 기억할 것이다. '창렬하다'는 말의 뜻은 '화려한 포장과 달리 내용이 부실하다' '값에 비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그 수준이 낮다'는 의미로 감장렬의 이름을 빌려 쓴 제품들의 내용이 부실한데서 유래된 말이다.

이에 비해 '해자스럽다'는 말의 뜻은 '가격 대비 훌륭하다' 또는 '가성비가 좋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는 김해자의 이름으로 나온 도시락이 포장에 걸맞은 풍부한 양을 자랑하게 되면서 생긴 신조어다.

한때 '슈퍼 푸드'라는 수식어와 함께 건강 기능 식품으로 각광받다 잊혀진 술한 수입 농산물이 많다. 국내 친환경 농산물이나 로컬 푸드는 과대·과장 광고

없이도 우리 소비자에게 이미 사랑받고 있다.

셋째 변화하는 혁신성이다. 김 회장의 손자 수남 역의 강현종은 게임 감독을 하고 있다. 그는 연기자의 길을 계속 걷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자신만의 길을 찾아 떠났다. 자신의 길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선 것이다. 우리 농산물 또한 새로운 변화를 끊임없이 강구해 나가야 한다. 스마트 팜, 사물 인터넷(IOT), 드론, 자율 주행 등의 기술 개발이 우리 농업·농촌에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넷째 협동과 융합이다. '복집이' 김지영은 김 회장 손자 '영남이' 역을 맡았던 남성진과 결혼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두 사람의 이러한 활동 모습은 좋은 배우들이 함께하면 낼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농협과 농민단체 등이 농가 소득, 농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힘을 하나로 모아야 우리 농업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속 가능하게 사랑받는 농산물이 되기 위한 새로운

기준 '뉴 노멀'에 맞게 실제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우리 농촌은 5G, 스마트 기기 등을 활용해 농촌 복지를 개선하며 스마트 농촌 마을 조성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리고 스마트 농업의 확산으로 향후 파종, 관리, 수확 등을 인공지능이 담당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양질의 농산물을 대량으로 생산해 가격 경쟁력 또한 갖추게 될 것이다.

전남 농협에서는 몇 년 전부터는 기후 변화에 대응해 아열대 작물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바나나, 애플 망고, 천혜향, 꿀 등이 '신도블이' 우리 농산물이 된 것이다.

이제 비대면 시대에 진화된 물류 시스템 덕분에 언제든 편하게 우리 농산물을 받아볼 수 있다. 1-2인 가구 확대로 소포장 농산물을 언제나 접할 수 있고 넘쳐나는 요리 정보로 손쉽게 요리할 수 있는 시대이다.

변화를 꾀하는 우리 농산물로 건강도 지키며 도시에서는 시골에서든 온 국민이 모두 '전원일기'를 써보는 것은 어떨까!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9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649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220-0632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220-0663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220-0652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220-0642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